

정읍시 농업 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첨단농업·상생 등 4대 전략 식량·원예·식품산업 등 제시 농업정책 기본 자료로 활용

정읍시가 강한농업, 편안한 농촌, 으뜸 정읍시를 목표로 미래 정읍 농업·농촌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어갈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수립했다.

정읍시는 최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2028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보고회'를 열고 풍요로운 농민과 농생명 첨단농업, 안전·청정 농촌, 상생의 으뜸도시를 목표로 4대 전략목표를 세웠다고 밝혔다.

'2024~2028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법적 의무 계획으로,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과 농촌의 중장기 비전을 담아 수립하는 지역단위 기본계획이다.

정읍시는 지난 5월 용역을 착수한 이후 분과위원회 개최(8개 분과), 지역주민 설문조사 실시(822명), 각 분야별 농업관련 단체와 면담 실시(23개 단체) 등 농업·농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이번 보고회에는 이학수 시장과 지역농·축협 조합장, 농민단체 회장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분야별 비전과 추진전략이 발표됐다.

핵심 전략 분야로 식량산업과 원예산업, 축산업, 식품산업, 미래농식품 농촌경제활성화, 지역개발사업이 제시됐다.

식량산업 분야에서는 고품질 생산기반 조성을



이학수 정읍시장이 최근 열린 '2024~2028 정읍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보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읍시 제공>

위한 품종별 생산기반 구축과 타작물 전환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가공유통 효율화 및 규모화, 단풍미인쌀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생산단지 체계 전환 등의 사업들이 포함됐다.

또 원예산업 분야로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아열대 작물 생산기반 확충과 축산분야의 축산냄새 저감지원 확대, 동물보호복지시설 확충을 비롯해 농촌경제활성화 분야로 그린바이오 육성 사업, 농촌 지역 스마트오피스 등 기존 및 신규사업들을 추진한다.

이번에 제시된 정읍시 농업·농촌 발전계획안은

지역농·축협 조합, 농민단체 등 30 농업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모아 조만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정읍시는 이달까지 발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고 향후 5년간의 정읍시 농업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정읍의 농업·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사업이 반영되도록 실현 가능한 전략이 담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어르신 목욕비 내년부터 6만원 지원

70세 이상 올해보다 1만원 인상

정읍시가 노인 목욕비 지원금을 확대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2021년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1인당 5만원의 목욕비를 지원해온 정읍시는 올해 목욕요금 인상에 따라 지원금액을 1만원 늘려 내년부터는 6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정읍시는 기존 종이 목욕권으로 목욕비를 지원해 부정사용 등이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방식을 목욕권에서 바우처카드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해 관련 조례도 개정했다.

바우처카드는 종이 목욕권보다 보관과 결제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분실 시 재발급을 받

을 수 있어 혜택을 100% 누릴 수 있고, 카드 시스템 운영으로 사업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바우처카드는 내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바우처카드를 발급하면 이용금액은 자동 충전되고 목욕 가맹점은 신용카드와 같은 정산체계를 활용하면 된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어르신 목욕비 지원사업의 바우처카드 도입으로 어르신들과 가맹점 모두가 보다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어르신이 행복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는 정읍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인복지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최우수'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

사업비 2억3000만원 확보

고창군이 '2023년 전국 농업기술센터 농기계임대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3년 농기계임대사업 평가는 전국 147개 시·군 436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대상으로 평가했다.

고창군은 이번 평가에서 임대사업 성과 및 정부 정책사업 참여, 조직원 업무능력 등 3개 분야에서 높은 득점을 획득함으로써 6년 연속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게 됐다.

이에 따른 상사업비로 고창군은 2024년 농기계 임대사업 관련 총 2억3000만원의 국·도비를 확보

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재 고창군 농기계임대사업소는 4개소로 총 98종 1014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올해 11월 기준 농기계 8580대를 임대, 배달서비스는 1610대를 무료로 진행했으며 수확철 주말 근무를 실시, 전년 대비 임대실적은 14% 증가했다.

군은 농업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가의 농촌 일손 부족에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리고자 농기계 임대료를 12월까지 50% 인하하고 있다.

또 농기계 수리센터와 멀리 떨어져 농기계 고장으로 인해 영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로 직접 찾아가 농기계 수리 봉사를 펼치고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남원시립미술관, 어린이 미술 교육·체험센터 개관

에듀센터 '콩' 창작실 등 갖춰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이 시각예술 분야 교육,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될 에듀센터 '콩'을 개관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콩'은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북도와 지리산 권역의 어린이들이 이용할 미술 관련 교육·체험 공간으로서, 콩처럼 무럭무럭 자라나 많은 결실을 맺길 바란다는 의미를 담아 지어진 이름이다.

그동안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은 매년 10만 명 안팎의 관람객들이 방문할 만큼 남원의 인기 장소(핫 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지만, 교육이나 체험을 진행할 공간이 없어 아쉬움을 남겨왔다.

'콩' 시설은 창작실, 교육실, 실감미디어 전시실, 미용용품 가게(아트 숍)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창작실에서는 버려지는 플라스틱병 뚜껑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체험 수업을 진행한다. 교육실에서는 신체 표현을 통한 미술 활동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실감미디어 전시실에서는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소장품을 이용한 미디어 전시를 선보일 예정으로, 올해는 김병중 화백의 화홍산수, 풍죽, 카리브



최경식(왼쪽 세번째) 남원시장 등이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콩' 개관식에 앞서 미술관을 둘러보고 있다. <남원시 제공>

등 색채의 매력에 빠질 수 있는 영상 전시가 마련되어 있다.

'콩'은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과 마찬가지로 매

주 월요일 휴관한다. 운영 문의는 063-620-5660. 주소는 남원시 함파우길 65-16이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12개 사업 추진

만 50~69세 재취업 지원

남원시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사업'이 고용노동부 공모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만 50~69세 미취업자에게 지역사회에 필요한 일자리를 제공해 재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남원시는 9억여원의 예산을 확보해 다문화 가정을 위한 한국어 맞춤 방문 교육, 찾아가는 치매 선

별검사 등의 사업을 내년 1년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총 40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정남훈 남원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전문성을 살려 인생 2막을 준비하고 지역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정부의 일자리 공모 사업에 적극 대응해 많은 시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수 목 장

또 다른 만남,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

광주 친환경 장묘 | 수목장·가족장 | 24시간 연중무휴 | ☎ 무료안치: 062-449-4446